

#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

- 점령지의 성적 경제와 여성 생존자의 기억 서사

김은하\*

## 차례

1. 젠더화된 전쟁과 언어화되지 못한 슬픔
2. '공감(共感) 공동체 바깥의 여성과 불가능한 애도
3. 타자, 이방인, 괴물: "양공주"의 기억과 재현
4. 결론을 대신하며

## <국문초록>

한국 문학은 '애도의 내셔널리즘'에 맞서 망각의 블랙홀에 빠져 버린 이들의 흔적을 찾아 지배적 기억에 균열을 내는 '기억 정치'의 면모를 보여 왔다. 그러나 '소수자'의 기억 투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여성들이 겪은 전쟁은 '공적인 애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여성이 겪은 전쟁이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여성의 '이방인(異邦人)성'과 관련성이 깊다. 전시 하에서 여성은 적군 병사의 성적 착취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생명의 사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병사를 키워 내고, 때로 자신의 민족이 증오하는 적군의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 모순 속에 놓인다. 그러나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수혜국과 원조국 사이에 성적 수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민족주의가 강력한 가부장성을 함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이 여성의 삶에 남긴 상흔에 대한 기억과 애도 작업은 박완서의 등장으로 가능해졌다. 그녀의 데뷔작(『나목』)에는 고귀한 이들은 떠나고 그들 대신 살아남았다는 자기 비난에 시달리는 딸(여성)의 수치심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녀는 좌익이었던 오빠의 죽음에 대한 기억의 거듭된 수정과 복원의 작업을 통해 ‘애도의 금지’라는 국가법에 맞서 시민의 정의를 일깨우는 한국의 ‘안티고네’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전쟁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채 물 속 깊이 “가라앉은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로 가부장적 민족 국가의 전쟁 기억 속에서 빗금쳐지거나 지워진 성폭력 피해자나 “양공주”이다. 박완서는 이들 여성 ‘하위 주체(subalten)’들을 자신의 문학적 공간 속으로 초대해 말할 수 있는 자의 위치를 부여한다. 그녀는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공동체가 삼켜 버린 여성들의 흔적을 찾고, 살아남은 자에게 이들에 대한 기억과 애도의 의무를 지운다.

핵심어 : 박완서, 한국 전쟁, 전시 성폭력, 양공주, 민족주의, 기억과 애도 등

## 1. 젠더화된 전쟁과 언어화되지 못한 상흔

6.25 전쟁은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동족 간 갈등으로 한국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전후의 국가는 반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주재하지 못했다. 가령, 전쟁 피해자에 대한 애도 작업은 죽은 자에 대한 살아 남은 자의 죄책감을 덜어 주고,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지 못했다. 애도의 의례는 죽은 자의 육신과 혼을 빌려 산 자를 단속하고 지배 권력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감정의 정치 공학으로써, 분단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한 것이다.<sup>1)</sup> 그 결과 전쟁터의 사자(死者)는 연

1) 이승만 정부는 전몰 군경에 대한 애도 정치를 통해 지배 체제 및 지배 정당성을 구축했다. 애도의 의례와 서사는 과거의 거기와 지금의 여기를 잇는 특정 시공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정치 권력을 신성화한다. 이영진,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정치』,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과 기억』, 이영진 외, 도서출판 길, 2017, 165쪽.

민과 공감의 대상이 되기보다 추모해야 할 신성한 죽음과 무의미한 죽음으로 위계화되었다. 아군의 죽음은 국가의 명령으로 호명되어 조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으로 현창되지만, 국가의 적(敵)은 살해해도 그 죄가 문초당하지 않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로 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체의 의례를 거부당한 존재로 깎아 내려진 것이다.<sup>2)</sup> 가까운 이의 죽음 앞에 장례로써 예를 갖추고 애곡(哀哭)하는 것은 인륜성의 근간이며 죽은 자와 산 자의 화해를 주선해 온 공동체의 오랜 전통이지만, 낙인(烙印)이 찍힌 죽음들은 초혼(招魂)조차 할 수 없이 삼켜진 것이다.

전후의 한국 문학은 사자(死者)에 대한 추모가 불가능해진 데 따른 우울증적 심연을 호소하는 한편으로 삼켜진 이들을 토해냄으로써 ‘애도의 내셔널리즘’에 저항해 왔다. 금지된 애도에 맞서 망각의 블랙홀에 빠져 버린 이들의 흔적을 찾아 지배적 기억에 균열을 내는 ‘기억 정치’의 면모를 보여온 것이다. 그러나 냉전 체제를 비판하며 소수자의 기억 투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전쟁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애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휴전이 이루어진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이 남성들의 희생과 수난으로 젠더화됨으로써 여성들이 겪은 전쟁은 ‘언어화되지 못한 경험’, ‘말 없는 경험’으로 남은 것이다. 가령, 전쟁은 전방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전쟁의 주변인으로 가정되며, 가족의 죽음과 실종, 전시 하의 굶주림, 폭격의 공포 등 여성들이 후방에서 겪은 전쟁은 전투의 경험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된다. 전시 하에서 여성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며, 여성의 생존은 남성들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고 은밀히 가정되어 온 것이다. 휴전 후 남성들은 전쟁의 상흔을 훈장 삼아 사회의 주체가 된 데 반해, 여성은 사회에서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위치에 배치되었다는 것은<sup>3)</sup> 이러한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암시

2)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는 ‘인간’의 범주 바깥에 놓여 권력에 의해 완전히 무용한 존재로 살해되고 방치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애도 정치와 ‘죽음의 분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다카하시 데쓰야, 『애도 작업을 가로막는 것』,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과 기억』, 앞의 책, 245쪽.

하는 듯하다.

그러나 젠더화된 전쟁의 양상에 주목한다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전쟁은 언어적으로 쉽게 재현할 수 없는 복잡성 혹은 중층성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가부장적인 젠더 정치가 시작되는 작용점인데, 이는 전시에 여성의 몸이 아군과 적이 힘을 겨루는 ‘장소’가 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자의 신체는 깃발을 내걸고 행진하는 승리의 은유”<sup>4)</sup>라는 말처럼 전시에서는 빈번히 전투의 일환으로써 성폭력이 발생한다. 전시 성폭력은 병사가 적군 남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입히고 자신들의 우월성과 지배를 적에게 각인시키는 전투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아군과 적군의 남성이 자신의 힘/무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은 여성에게 어느 범주에도 들어 맞지 않는 경계인 혹은 ‘이방인(異邦人)’인의 모호한 위치를 부여한다. 캐테 콜비츠는 ‘여성이 자신이 겪은 전쟁의 경험을 털어놓는다면, 세상은 과연 지금처럼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전쟁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생명의 사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병사를 키워 내고, 때로 자신의 민족이 증오하는 적군의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 모순 속에 놓이기 때문이다.<sup>5)</sup> 더욱이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은 비단 공인된 ‘적’에 의해서만 저질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전후 민족주의적 국가는 이러한 복잡성을 사유할 수 있는 성(gender)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의 전쟁은 집단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불쾌한 기억으로 취급되어 당사자 개인이 혼자서 짊어져야 할 수치스러운

3) 이재경, 『여성의 시각에서 본 분단과 근대』,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이재경·윤택림·조영주 외, 아르케, 2013, 17쪽.

4) 와카쿠와 미도리, 김원식 역, 『전쟁과 젠더: 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 알마, 2005, 201쪽.

5) 권김현경, 『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거리에 선 페미니즘 - 여성 혐오를 멈추기 위한 8시간, 28800초의 기록』, 한국여성민우회 엮음, 궁리, 2016, 200쪽에서 재인용.

비밀이 되었다.<sup>6)</sup>

대한민국의 수립 이래로 남한의 정권이 민족주의를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독재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중의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과 반일의 가치를 앞세운 민족주의 수사로 정권의 빈약한 정당성을 상쇄시키려 했으며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 역시 관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며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통해 민족 공동체를 근대화하고자 했다.<sup>7)</sup> 민족주의는 식민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구원에 비견할 만큼 숭앙받은 것이다. 최정무는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유달리 신성하고 고결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가 미국의 “수혜 경제 체제”에 놓였던 역사적 사실에서 찾는다. 그녀는 “수혜 경제 체제에 놓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든 위신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과 빚지고 있다는 느낌이나 자기 연민 사이에서 양가적인 상태에 빠져 번민하게 된다”는 심리적 메카니즘을 들어, 제국과 식민의 위계화된 관계가 수혜국에게 강요하는 자기 비하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필요했으리라고 유추한다. 특히 “점령지의 수혜 경제는 성적 경제라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강력한 가부장성을 함축하게 된다. 일상의 영역에서 “여성에게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주의가 정신적 우월성과 남성적인 고결함을 간직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역사 심리적 분석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기

6) 전쟁을 전투로 환원해 버리면,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겪어 왔다는 사실이 간과됨으로써 전쟁에 대한 여성주의적 반성이 불가능해지고, 여성이 겪은 사건과 그 피해는 침묵의 벽 속에 가두어 진다.

7) 문승숙, 일레인 H. 김·최정무, 박은미 역, 『민족 공동체 만들기』,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56쪽.

8) 최정무는 “식민국과 피식민국 사이의 관계는 은유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조차 철저히 성(차)별화되고 성애화되며, 그 결과 주둔군을 위한 군대 위안 시설의 설치를 국가 차원에서 교섭하기도 한다.”고 분석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최정무,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나 한국 전쟁의 산물로서 “양공주”의 전쟁은 왜 기억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측면이 있다.

외면당한 기억을 공론장에 발설한 것은 한국 전쟁을 체험한 여성 작가들이었다. 박화성, 박경리, 박완서 등 여성 작가들은 전쟁으로 인한 일상의 붕괴 양상에 천착하는 한편으로 공백으로 남은 여성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해 왔다.<sup>9)</sup> 가령, 박화성의 『거리에는 바람이』(1964)에서 주인공 서윤주는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자 혈혈단신으로 월남해 임시 수도인 부산의 장터에서 사업가의 꿈을 키운다. 그녀의 상업적 탁월성은 ‘월남’이 비단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모험과 도전임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낮은 땅에서 만난 이웃 남성과 남한에 거주하는 사촌 남동생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그녀는 수치심에 시달리며 종교적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sup>10)</sup> 박경리 역시 전쟁터에서 여성은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상품인 양 교환되는 ‘물질화된 몸’임을 증언한다. 『재귀열(再歸熱)』(1959)의 여주인공 난우는 공산주의자 애인을 두었다는 이유로 우익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의 언니인 송우가 겪은 전쟁도 참혹하기는 마찬가지다. 송우는 애인이 월북하자 그의 친구에게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고, 38선을 넘는 과정에서 이국 병사에게 강간을 당하고 밥 한 끼를 얻기 위해 몸을 파는 등 그녀의 표현을 빌면 “낮짜도 모르는 개들에게 몸을 짓밟”<sup>11)</sup>한다. 전시를 지배하는 남성성 숭배 문화와 점령의 욕망 속에 위치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전쟁이 지극히 폭력적인 가부장제임을 뜻한다.

성』, 앞의 책, 27~28쪽.

9) 김예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17, 한국여성철학학회, 2012, 35~60쪽.

10) 이 소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할 것. 서정자,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 어떻게 볼 것인가』, 『숙명문학』 2, 숙명문학인회, 2013, 206~229쪽; 서정자, 『박화성의 해방 후 소설과 역사의식』,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49~72쪽.

11) 박경리, 『재귀열(再歸熱)』, 『박경리문학전집 10: 환상의 시기』, 지식산업사, 1987, 237쪽.

기실 한국 전쟁은 남성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올 만큼 여성의 근대적 개인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여성문화사의 변곡점이었다. 가령 박완서의 소설에서 전쟁을 겪은 여성 화자가 도시에서 오래된 기와집을 발견했을 때 그리움과 연민에 사로잡히는 것은, 전쟁으로 고색창연한 가부장제가 내부로부터 흔들렸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것 혹은 흐릿해진 것만이 노스텔지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성의 부재를 대신해 여성이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경제 주체가 되고, 미국 문화가 유입으로 새로운 욕망을 경험하면서 가부장제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재난의 극복이 가부장제의 복원으로 수렴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전쟁은 강력한 젠더 정치가 시작되는 결정적이기도 하다. 매체 부흥의 시대를 맞아 『여원』(1955년 창간) 등 여성지들이 발간되면서 가정은 여성의 성소로 제한되고, ‘풍속의 정화’라는 명분 하에 여성에게서 ‘창부성’을 발견하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시 체제가 강화되는 등 공론장은 보수화된다. 전쟁의 외상과 빈곤이 시달리는 남성들의 ‘남성성 상실’이라는 위기를 해결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여성 혐오의 문화 정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사실은 전후 여성 작가들이 왜 그토록 ‘고결한 여성’의 재현에 몰두했는가 설명해 주는 듯하다. 국가 재건기의 여성 문학에서 여주인공들은 대중적 숭고(崇高, the sublime)의 화신들이다. 그녀들은 ‘우아미’의 현현(顯現)으로서 남성들의 욕망 대상이 되지만, “창부”와 달리 무성애자를 연상시킬 만큼 고결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구애의 실패라는 좌절을 안겨 주기도 한다. 가령 『재귀열(再歸熱)』에서 난우는 아름답지만 차가운 여자로, 폭력으로도 그녀를 소유할 수 없자 남자는 수치심에 사로 잡혀

12) 전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는 남성의 수치심이 여성에게 투사(投射)된 결과였다. 여성성 숭배의 이면에는 여성 혐오의 문화가 놓여 있다. 가부장적 문화 정치의 일환으로서 정병식의 전후 베스트셀러인 『자유부인』(1954)은 미제 물건과 댄스 열풍 등 양풍 모방으로 인한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여성들의 책임인 양 떠넘기면서 전통적 가부장제로 회귀하자고 설득했다.

자살한다. 고결한 여성과 구애에 실패하는 남성의 구도는 박경리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전후 여성 문학이 공유하는 보편적 특징이다.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이기조차 한 이러한 구도는 전시 성폭력이 공적 의제가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여성 작가가 선택한 곤궁한 해결책이었다. 여성 작가들은 새롭게 도래한 현실 앞에 이상화된 여성을 창조함으로써 전후 가부장제 질서에 복종하는 한편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의 관용(寬容, toleration)을 촉구하며 젠더 정치에 맞섰던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여성을 성녀와 악녀로 분단 지배하는 이원화 체제라는 점에서<sup>13)</sup>, ‘승고의 여성성’은 지배 질서를 해체하는 급진적인 상상력은 되지 못한다.

한국 전쟁에 대한 여성의 본격적인 기억과 성찰은 박완서가 마흔 살의 나이에 문단에 데뷔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박완서는 1970년 자신이 스무살에 겪은 전쟁을 밑그림으로 한 『나목』으로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어 데뷔했다. 이후 그녀는 전쟁이 자기의 발 뒤꿈치를 따라 다닌다고 고백할 만큼 전쟁의 증언자 노릇을 자처해 왔다. 『나목』은 지존심 강한 여성이 전쟁의 폭격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도발적인 기록이지만, 서사의 심층에 무겁게 깔린 것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한 어머니가 병 중에 무심코 내뱉은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지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sup>14)</sup>라는 말로 함축되는, 살아남은 여성의 수치심이다. 그러나 자기 존재에 대한 미움과 혐오에 시달리던 그녀는 전쟁에 대한 고발과 증언의 주체가 됨으로써 자기 파괴적인 ‘수치심’을 인간의 예리한 도덕 감정, 즉 ‘양심’으로 전환시키는 작가가 되었다.<sup>15)</sup>

13)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는 남자가 남성으로서 성적 주체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 멸시를 아이덴티티 핵심 깊은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여성 혐오(misogyny)’로, 가부장제는 여성을 성녀/장녀, 아내·어머니/매춘부 등 두 집단으로 분할해 통치함으로써 여성의 연대를 가로막고 지배의 프레임을 완성한다고 비판한다.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51쪽.

14) 박완서, 『박완서 소설전집 10: 나목』, 세계사, 1995, 230쪽.

15) 여기서 수치심은 사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 품는 경멸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됨 자체를 심문하는 도덕 감정으로서 ‘수오지심(羞惡之心)’을 뜻한다. 그것은 그만 있으라고 ‘명량’을 부추기고, 경제 개발의 프로젝트를 가동



이렇듯 박완서 문학의 중핵에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놓여 있다. 그러나 그녀가 전쟁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채 물 속 깊이 가라앉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로 가부장적 민족 국가의 기억 속에서 빗금쳐지거나 지워진 성폭력 피해자나 양공주 등 이른바 “더럽혀진” 여자들이다. 박완서는 이들 여성 ‘하위 주체(subalten)’들을 상징이나 표상으로 삼는 대신에 자신의 문학적 공간 속으로 초대하고 말할 수 있는 자의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살아남은 자들에게 애도의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그간 박완서 문학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오빠의 죽음에 대한 증언과 애도나 모녀의 생존기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이들 여성 하위 주체들에 대한 기억과 증언 서사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 2. ‘공감(共感)’ 공동체 바깥의 여성과 불가능한 애도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1980)은 치매의 조짐을 보이는 노년의 여의사가 은퇴를 앞 둔 사흘 간의 이야기로, 남성중심적인 산업화 시기에 일상적으로 자행된 ‘낙태’를 소재로 ‘여성성의 도구화’라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이야기의 심층에는 한국 전쟁의 한 양상으로써 미국 병사에 의해 자행된 전시 성폭력에 관한 기억과 애도의 문제가 제

---

함으로써 욕망을 권하는 등 ‘애도의 금지’를 명하는 국가에 맞서 인간의 정의를 주장하게 만든 정서적 동력이다.

- 16) 주인공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국적이 무엇인지 이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박완서는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87)에서 미군의 한국인 양민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다루는 등 미국 군대의 주둔 이후 남한 사회에 형성된 “성적 수혜 경제 체제”를 문제적으로 다루어 왔다는 점을 참조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은 전시 하 미군 부대의 한국인 처녀 공납 에피소드를 통해 젠더화된 한국 전쟁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늙은 여자를 통해 모성과 여성에 대한 통념에 맞서는 신비로우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기되고 있다.<sup>17)</sup> 박완서는 전시 성폭력을 민족의 수난으로 은유하면서 남 성성의 구축을 기도하는 민족주의 텍스트와 달리, 독자를 성폭력 ‘생존자’의 지옥같은 삶과 내면 속으로 깊숙이 끌어 들임으로써 전쟁이 여성의 삶에 가한 충격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주인공인 ‘나’는 동란이 끝나 갈 무렵인 1953년에 여의전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울의 변두리에 산부인과를 개원한다. 그러나 명색이 산부인과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곁자와 큐넷 같은 쇠붙이를 통해 ‘제거’되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 있다면 작은 읍(邑)을 이룰 만큼 많은 아이들을 살해해와 “인간 백정”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낙태 전문의인 것이다. 이렇듯 여자의 낙태에 중독된 행위는 오래 전 겪은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징후이다. 여의전에 재학 중이던 ‘나’는 동란을 맞아 선배의 병원 일을 돕던 중 미국 병사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무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름 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와 “내 몸을 감던 유연하고도 힘센 사지, 내 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232쪽)을 생생히 기억할 만큼 ‘나’는 여전히 기억으로부터 고통 받는 성폭력 ‘생존자’인 것이다.

산부인과를 개업할 장소를 찾던 ‘나’가 사진관의 바닥에 흩어진 사진 속 미지의 사람들에게 “몽클한 친화감”을 느끼는 장면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6·25, 그건 우리 모두의 공동의 획”(232쪽)으로 모두의 운명을 굴절시킨 공동의 ‘사건’이기에, “당시와 지금과의 사이에 굽은 획(劃)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짐작만으로도 미지의 사람들에게 연대감을 품는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겪은 성폭력의 고통은 혼자만이 짊어진 고독이다. 삶을 난타하는 재난들은 타인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조금이라

17) 미군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전쟁기에 후방 지역의 여성들은 유엔군, 미군과 한국 군을 위한 ‘위안부’로 제공되었으며, 미군의 양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다. 한국 전쟁기 미군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하야시 히로후미, 박해순 역, 『한국에서의 미군의 성 관리와 성폭력: 군정기부터 1950년대』, 『군대와 성폭력』, 송연옥·김영 외, 선인, 2012, 273쪽.

도 견딜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 ‘말하는 존재’로서 인간과 문화가 지닌 독특한 성격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민족주의 공동체에서는 순결 이데올로기 의해 성폭력 피해자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비난을 가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존재는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방인 병사에 의해 이루어진 성폭력은 민족적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편한 기억이라는 점에서 고발이나 증언조차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애도’는 이루어지지 못한다.<sup>18)</sup> 그래서 ‘나’가 사진관 자리에 산부인과를 개업하고, 흥분과 광기 속에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는 마치 어둠 속에 밀봉되어 있는 자신의 상처를 인화하고 세상 앞에 그것을 보라고 외치는 비명인 양 여겨진다. 낙태에 중독된 듯한 ‘나의 이상(異常) 행위’는 성폭력과 “여자가 치부를 얼굴처럼 치켜들”게 하고 “치욕적인 박해”를 가하는 듯한 낙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증거이다. 그녀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날마다 ‘사건’의 현장으로 끌려가 “이유 없는 박해”(234쪽)의 매질을 당하는 지옥 속에 갇힌 것이다.

---

18) 베네딕트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에서 민족을 영토와 혈통에 기반을 둔 자연적 실체로 여겨온 기존의 관점과 달리 특정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알지 못하고, 또 공동체 내부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동질감과 수평적 연대 의식을 갖는다고 ‘상상’한다는 점에서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호명한다. 앤더슨은 이렇듯 민족을 구성하는 것으로 민족 표준어, 신문, 소설, 잡지 등 새로운 근대적 문물을 들어 문학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길을 열었다. 가령,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동시에 등장함으로써 자신과 이들이 동시대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실재 안에 있다는 상상 속에서 친애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다.(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1991, 19~63쪽.) 이는 문학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는 한편으로 민족의 변형을 위해 각자가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일깨워 주는 근대의 제도로서 발견되었음을 의미한다. 민족주의는 각자에게 자신이 속한 국가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자부심과 정서적 애착을 붙여 넣음으로써 남들에 대한 의무, 공적인 선을 위한 희생의 필요성, 국가의 이상에 내재한 평등과 존엄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얼굴을 자기 내부로 돌려 민족의 체면을 깎아내리거나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 세력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공격욕을 부추기기도 한다.

박완서는 성폭력 사건이 여성의 영혼과 삶에 가한 충격을 통해 고통만  
 는 피해자에 대한 독자의 공감에 일어날 수 있는 ‘틈’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마치 ‘공감의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운 예감만이 ‘사건’ 바깥의 사  
 람들이 피해 당사자의 고통에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듯 성폭력 피  
 해자에 대한 동정적 동일시나 가부장적 ‘관용’ 담론과 선을 긋는다. ‘나’는  
 폭력에 제압당한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적 정의가 부재한 세상에  
 맞서 ‘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낙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성적 판단 능력을 무너뜨리는 커다란 충격과 슬픔으  
 로 환원되기 어려울 만큼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향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사회적 동정과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  
 부장적 질서를 비웃고 교란하는 여성 반항자의 면모를 보여 준다. 사진관  
 에 있었던 “이물(異物)스럽고도 귀골스러워” 보이는 우단 의자는 소설  
 속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옥양목 두루마기를 입고 수  
 염을 기른 아버지에게나 어울릴 만큼 기품 있는 것으로 묘사되듯이 ‘아버  
 지의 법’이나 가부장적 초차이를 상징하는 소도구이다. 실제로 아버지는  
 그 의자에 앉아 ‘나’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든 액자를 건네며 “예로  
 부터 의술은 인술이라 했거늘 어질게 써야 하느니라”(236쪽)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격하기는커녕 복받치는 웃음을 참기 위  
 해 이를 악문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단 의자를 치우지 않고, 마치 아버지에게 시위하듯 하는 듯 “웬만한  
 읊을 구성할 만한 인명을 처치”(244쪽)하며 사회를 조롱한다.

여기서 ‘아버지’는 사랑, 생명, 학문 등 인간을 한낱 생물이 아니라 존  
 엄한 인간으로 완성시켜 줄 ‘정신적 가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우단 의자  
 는 “눈에 거슬리게 호화스러운 것”이라는 부정적 표현이 함축하듯이 현  
 실에서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윤리적 가치’들을 가리킨다. 전  
 시 하에서 도덕의 일반법칙을 대신하는 것은 ‘약육강식’과 ‘생존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냉소는 전쟁에서 누구도 자기 행  
 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의 자기

기만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좋은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결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를 받기는 커녕 물리적이고도 상징적인 폭력의 희생양이라는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가령, 여자는 생명을 품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현실에서 여성성은 남성과 남성중심사회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착취 대상이 된다. 이렇듯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나’는 강간을 당한 여자에게 사회가 퍼붓는 모멸과, 자신이 가장 중요하는 남자의 아이를 사랑으로 길러야 하는 부조리를 견딜 수 없어 생명의 사체가 아니라 생명의 파괴자를 자처한다.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게 인술의 꿈이라면, 여자를 그런 질병 이상의 고통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건 나의 꿈이었다.”(233쪽)는 서술은 ‘낙태’가 슬픔과 치욕 속에서도 여성이 삶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즉 “이유 모를 박해” 속에 던져진 여성들에 대한 구조 행위임을 뜻한다.<sup>19)</sup>

“원치 않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의 고통이 어떻다는 건 그걸 가져본 여자만이 안다. 모든 질병의 고통은 동정자를 끌어 모으지만 그 고통만은 비난과 조소를 면치 못한다.”(232쪽)는 서술은 낙태에 대한 종교적, 윤리적 논쟁에서 빠진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려 준다. 그러나 낙태는 여성의 성적 육체를 섹스나 출산의 도구로 삼는 가부장적 사회와 공모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나’가 서울의 동쪽 끝에 위치한 변두리에 산부인과를

19) 낙태가 여성의 죄로 규정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생명을 담은 그릇으로 정의하고 있는 증거이다. 가부장제 사회는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분리하고 두 개의 권리를 대치시킴으로써 낙태를 여성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아이를 살해하는 부도덕으로 프레임화해 왔다. 그러나 태아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될 때까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태아는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체에 의존해 있는 존재로서의 태아가 이미 세상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생명과 권리보다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낙태를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만 규정할 때, 생명에 대한 성찰은 사라지고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책임에 대한 논의는 쉽게 삭제되어 버린다. 손희정, 『관계성을 드러내는 사건, <자 이제 댄스타임>』, 『여/성이론』 3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4, 245쪽에서 재인용(나영, 『낙태, ‘생명권 대 선택권’이라는 오래된 이분법의 착각을 넘어서기 위하여』, 2012년 9월 20일, <http://luminal78.tistory.com/1169566262>. (검색 일: 2014.09.25.))

개원한 이유는 철길 하나면 건너면 기름 내가 코를 찌르는 양주군이 고농업 학교가 미군 부대로 사용되면서 형성된 “성적 수혜 경제”(최정무)로 인해 마을이 “아름다운 화냥기 같은 길로 오염돼 있었”(231쪽)기 때문이다. 짐작처럼 수많은 양공주들은 ‘나’의 환자이자 고객이 되어 병원 사업은 번창한다. 그러나 휴전이 되고 미군 부대가 철수한 뒤에도 병원은 낙태를 원하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남성을 근대적 국가 건설의 주체로 내세운 개발주의는 여성을 ‘산업의 위안부’로 호출해 성매매가 성행하고, 가문의 대를 잇거나 가족의 신분 상승을 위한 출산 조절이 권장되면서 원하지 않는 아이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가 비밀비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20)</sup> ‘나’의 병원에서 주부나 성매매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건강을 갈망하며 살해 당한 아기의 태반을 먹여치우는 장면은 몹시 그로테스크하게 그려진다. 여기에는 여성이 생명을 품고 기르는 생명의 사체가 아니라 한낱 쾌락의 대상이나 출산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 산부인과와 이웃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성 신도들의 기도와 통곡 소리는 낙태 문제에서 여성은 가해자/피해자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위치에 서 있음을 암시한다.

박완서는 가부장제에 의해 순치되지 않은 여성성의 회복을 의도하면서 한국 전쟁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애도 작업을 주재한다. 노년에 접어들어 ‘나’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치매 상태 속에서 훼손된 몸의 죽은 아이가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살아있는 아이를 받아 보고 싶다는 소망을 토로한다. 그리고 ‘나’의 절실한 소망에 대한 응답인 양 병원의 문을 닫는 마지막 날, 강간당한 아이를 잉태한 소녀가 만삭의 몸으로 ‘나’를 찾아온다. 미숙한 몸의 소녀는 먼 시간 저 편 속에서 강간당해 아이를 임신한 채 울부짖고 있는 젊은 ‘나’ 자신이기도 하다. 성의 쾌락도 없이 임신의 죄를 짊어

20) 여성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낙태를 경험했다. 여성은 때로 인구 조절을 위해 출산율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에 의해 애국적 행위로 의미화되는가 하면, 성산업의 발달로 문란해진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여성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부장제 담론으로 활용되었다.

진 소녀는 생지옥의 고통 속에서 오래 전의 자신처럼 잉태한 아이를 제거하고 싶어한다.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진 생지옥의 괴로움은 이미 소녀의 것이 아닌, 내가 지닌 깊고 어두운 곳으로부터 되살아난 나의 것”(273쪽)이라는 서술이 암시하듯이 소녀의 비명은 ‘나’의 절규이다. 나는 자신을 죽이고 싶기 때문에 아이를 제거해 달라는 애원하는 소녀를 통해 “살의 중에서도 가장 냉혹하고도 열렬한 살의는 자기 몸속에 있는 것에 대한 살의”(272쪽)임을 확인한다. 여성과 아이는 두 개로 분리될 수 없는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의 비극성이 다시금 확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녀를 살리기 위해 아기를 살리기로 마음먹는다. 소녀가 자신처럼 삶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을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절규하듯 소녀가 짐승처럼 고통치고 발광하며 아기를 출산하는 밤, ‘나’는 검은 거울로 변한 유리창에 자신의 움푹한 눈이 잔인하게 빛나는 것을 목격한다. 증오로 번득이는 그 얼굴은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해 깊이 아프고 병든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다. “신세진 것은 그들(‘나’의 환자이자 고객들-인용자)이 아니라 나였다”(267쪽)는 서술이 암시하듯이 ‘낙태’는 이유 없는 박해로부터 여성으로 구원하기 위한 미덕이 아니라 증오의 쾌락을 위한 것이었다. 즉 임부와 태이는 그녀 자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었던 것이다. ‘나’는 속죄와 구원에 대한 소망인 양 소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미숙아가 살아주기를 소망하며 큰 병원에 달려간다. 그녀는 “아아, 이제부터 나는 아무 것도 숨길 필요가 없겠다. 나는 아기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기르고 사랑할 수 있는 아기를”(275쪽)이라며 자신이 오래도록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해 왔다고 고백한다. ‘나’의 낙태 행위는 기실 생명, 즉 여성에 대한 모독 행위였던 것이다. 여기서 모성성에 대한 ‘나’의 갈망은 여성성을 모성성으로 환원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가면을 박차고 생명력처럼 억세게 분출”(275쪽)하는 모성적 여성성의 신비로, 여성의 몸체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소유권에 대한 상상력을 넘어선다. 그러나 끝내 아

이가 사망하자 ‘나’는 깊은 슬픔 속에서 아이를 자기 집의 정원에 묻고 범람할 듯한 슬픔을 안고 교회를 향한다. ‘나’는 비로소 자기의 내면과 영혼 속에 웅크린 상처를 대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나’의 통곡은 애도의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 3. 타자, 이방인, 괴물: “양공주”의 기억과 재현

앞서 말했듯이 등단작 『나목』에서 오빠를 잃고 악몽과 히스테리에 시달리는 이경이 보여주듯이 박완서의 문학은 자신의 연명 앞에 수치심을 느끼는 누이의 서사이다. 그간 연구자들이 밝혀왔듯이 박완서의 전쟁에 대한 글쓰기는 왜곡된 기억을 바로 잡고 지워진 기억을 찾는 수정과 복원의 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sup>21)</sup> 그녀는 특히 오빠의 죽음에 대한 여러 번의 수정, 복원 작업을 거치는데 초기작에서 오빠는 폭격을 맞아 비명횡사한 아름다운 젊은이로 추상화되지만 점차로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치하고 더리고 졸렬한 응석”(142쪽)으로 식구들을 괴롭힐 만큼 “깊이 병들어 있”는 전쟁 희생자의 모습으로 그려진다.<sup>22)</sup> 이렇듯 수정과 복원이 되풀이 되면서 이야기의 중심은 오빠가 아니라 모녀로 옮겨 간다. 총상 입은 오빠로 인해 피난을 가지 못한 모녀가 정부가 버리고 간 서울에 남아 도둑질로 연명하고, 서울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가짜 피난을 다녀오는

21) 김양선은 “남들이 발언하기 꺼리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공문화하지 않는 것, 이미 굳어진 채 일상 저편에 음각되어 숨어버린 것을 찾아 내고 거기에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특유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박완서 문학의 특징으로 “복원의 의지”를 든 바 있다. 김양선, 『복원과 복수의 네버엔딩 스토리』, 『경계에 선 여성문학』, 역락, 2009, 121쪽.

22) 애초 『나목』에서 오빠는 폭격 속에서 비명횡사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후 『목마른 계절』(원제 『한밭기』, 1972), 『그 산은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엄마의 말뚝』(1981) 등에서 폭격이 아니라 총격을 입고 서서히 죽어간 것으로 수정되며, 죽음이라는 사건은 인간을 한낱 벌레로 전락하게 만든 전체주의의 폭력으로 초점화된다.



과정을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전쟁을 여성의 생존과 성장의 역사로 재현한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완서는 초기작에서부터 줄곧 미국의 점령지인 남한에 형성된 “성적 수혜 경제”에서 젊은 여성이 겪는 섹슈얼리티의 위기에 주목함으로써 젠더화된 전쟁의 한 양상을 포착하고, 전쟁이 끝났지만 공동체와 인간적인 삶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민족 국가의 경계 바깥을 떠도는 한국 전쟁의 여성 희생자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여성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트라우마적 기억을 되풀이 해 쓴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으로 되돌아 가 다시 외상에 노출되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다시금 전쟁의 기억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휴전이 되고도 본래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이 존재해서다. 집요한 수정과 복원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애도되지 못한 채 민족 국가의 경계를 떠도는 유령들, 즉 여성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면 박완서의 한국 전쟁에 대한 회고담은 가부장적 민족 국가의 경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던 여성이 결혼을 통해 정상 사회로 복귀함으로써 사회적 안전과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이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박완서의 여러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남성 보호자를 잃은 “여염집”의 처녀가 사회 속으로 뛰어 들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도하다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 결혼을 해 새 가족을 형성하는 연애와 혼인의 플롯을 취하고 있다. 작가 자신의 실제 경험처럼 어린 처녀이지만 전쟁으로 졸지에 가장이 된 여주인공들은 학벌과 젊은 여성이라는 육체 자본을 바탕으로 미군 피엑스(PX) 초상화부에 근무하며 늙은 어머니와 어린 조카들을 부양한다. 한국 전쟁은 국제전으로 원조군인 미국의 군대를 중심으로 기지촌이 형성되고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여성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했다는 점에서 미군 부대에서 일한다는 것은 자긍심은 커녕 수치심을 안겨 주는 일에 가깝다.<sup>23)</sup> 따라서 피엑스 걸인 ‘나’는 높은 급료가 주는 경제적 안정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공주로 오인될 지 모른다는 불

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결혼으로 미군 부대를 떠날 수 있게 되자 ‘더럽혀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여성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안전의 확보를 뜻하지 않고, 강간의 위협과 새롭게 출현한 성의 상품 경제로부터 순결을 지켜냄으로써 민족 공동체 바깥으로 내밀리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는 박완서 소설에서 한국 전쟁의 독특한 산물로서 가부장제의 경제 바깥에 위치한 “양공주”의 재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양공주는 전쟁의 무질서와 혼란이 만든 피해자이지만, 사회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구조되지 못한 채 망각된 존재이다. 전쟁기 기지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1970~80년대 기지촌 여성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로웠고, 미군이나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이렇다 할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sup>24)</sup> 성매매 여성은 개인 사업자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에 대해 방임적 태도를 취한 것은 성의 서비스를 물질적, 군사적 원조를 받고 있는 ‘수혜국’이 지불해야 할 상당한 비용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민간에서도 양공주가 되는 것은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려운 시절을 가족과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쓰러린 선택’의 문제 정도로 여겼다. 이는 양공주가 개인 사업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실 미군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기대하는 가족과 민족을 위해 성매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위안부’임을 뜻한다. 그러

23) 다음과 같은 소설의 한 장면은 한국 전쟁기에 PX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 준다. “(중략) 시중에서 PX 다니는 여자들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나빴다. 여복해야 우리가 저녁에 한꺼번에 퇴근할 때면 주변의 세고 썬 거지, 구두 닦이 소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양갈보, 똥갈보, 어디를 가느냐, 엉덩짝을 흔들며 어디를 가느냐, 캄캄한 뒷골목 나 혼자 걸어서 하우마치, 완 타입 × 팔러 간단다” 이렇게 합창을 하며 따라 왔고 질 나쁜 거지는 양행을 그린 얼굴을 험하게 찡그리고 오물이 든 깡통을 들이대며 “이 똥갈보야 돈 내와, 안 내놓으면 옷에 똥 묻혀줄 테다”하고 협박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박완서, 『공항에서 만난 사람』, 『박완서 단편 소설 전집 2: 조그만 체험기』, 문학동네, 1999, 336쪽.

24) 캐서린 H.S.문,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위험한 여성』, 앞의 책, 188쪽.

나 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쟁의 불안이 가라 앉게 되자 양공주는 극렬한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어 기지촌과 같은 주변부로 내몰리며, 동질적인 민족 공동체 속으로 귀환하지 못했다. 전후 국가는 전쟁의 희생자로서 고아, 미망인, 상이군인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며 구호의 대책을 세우고, 공론장은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양공주는 전쟁의 희생자로 포착되지 못함으로써 국가적, 사회적 원조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박완서는 섹슈얼리티의 여성 생존사로서 전쟁과 외래 문화의 유입 속에서 생겨나 몸 팔아 가족과 사회를 부양했지만 역사가 꿀깍 삼켜 버린 존재인 양공주에 대해 초기작에서 이렇다 할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었다고 하기 어렵다. 『나목』 등 전쟁 체험을 그린 여러 장편과 『공항에서 만난 손님』(1978) 등 몇몇 단편에서는 “양공주”가 등장하지만 그녀들은 중요한 위치를 갖지 못했다. 전후 탈식민 민족주의 국가의 재건과 발전주의의 기획 속에서 “양공주”는 주로 ‘오염의 상상력’과 관련해 민족의 모호한 위치를 보여주는 이방인 혹은 타자로 표상됨으로써 ‘영토화된 몸’이 되어 왔다.<sup>25)</sup> 박완서는 양공주를 정조 관념이 없고 물신적 욕망에 사로잡혀 전통을 위협하는 ‘아프레 걸’로 낙인찍는 가부장적 민족주의 서사의 문법과 달리, 사고팔면 안 되는 것들을 거래하고, 흠치고 속이는 비정상적인 삶을 마치 도덕적인 것인 양 착각하게 하는 전쟁의 기만과 위선을 보여주는 존재로 포착했다. 가령 『나목』에서 미군 부대의 한인 판매직 여성인 ‘다이아나 김’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양공주 노릇마저 무릅쓰는 허위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 산은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미군 장교를 유혹해 이익을 취하고 미국으로 떠나고자 하는 비즈니스 걸인 ‘티나 김’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그의 첩이 낳은

25) 오상원의 『황선지대』(1960), 하근찬의 『왕릉과 주둔군』(1963) 등 탈식민 민족주의 계열의 작품에서 양공주는 순결한 민족을 위협하는 오염물로 표상된다. 줄고,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를 참고할 것.

자식마저 부양하는 기만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렇듯 모순적이고도 기괴한 진실 앞에서 주인공인 ‘나’는 냉소와 혐오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박완서는 점차로 양공주를 한국 전쟁이 야기한 불행한 산물로 포착함으로써 도덕적 시선과 잣대의 폭력을 휘두르는 대신에 한국 전쟁의 복잡한 함의를 발견하는 한편으로 이들을 보편적 인간의 권리조차 갖지 못한 여성 하위 주체로 발견하는데<sup>26)</sup>, 이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살아남지 못한 여성에 대해 살아남은 여성이 갖는 부채감으로 볼 수 있다.

박완서의 마지막 장편소설이 된 『그 남자네 집』은 본래 노년의 여성 화자가 우연한 계기로 첫사랑의 집을 발견해 그와의 사랑을 회고하는 이야기이다. 화자와 함께 오십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르면 전쟁으로 마음을 다친 스무 살의 주인공과 젊은 그녀를 ‘위험한 바람’으로 일렁거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청년인 현보가 있다. 스무 살의 나는 현보와 폭격으로 황량하기만 한 서울에서 시대의 우울에 점령당하지 않으려는 듯 시춘 간의 친밀감과 남녀의 애정을 넘나드는 모호한 관계를 맺는다. 현보를 향한 나의 열정은 내가 결혼을 해 새댁이 된 후에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 황량한 서울이 “구슬같은 겨울”로 탈바꿈하는 마법을 선사해 주었던 아름답고 낭만적인 청년 현보가 전쟁 중에 뇌를 다친 후유증으로 결국 장님이 되자 ‘나’는 비로소 환상에서 깨어나 전쟁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드리운 상처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이러한 이야기의 열개만 보면 이 소설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이 겪은 수난과 희생을 증언하고 애도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소설의 중반부에 이르면 이야기의 초점은 현보가 아니라 주변부 인물에 불과했던 양공주 춘희에게로 옮겨 가면서 ‘나’와 춘희, 즉 한국 전쟁기의 젊은 여성들이 겪어 낸 전쟁의 의미가 탐색된

26) 박완서는 서울대 특강에서 지금은 마지막 장편소설이 된 『그 남자네 집』(2004)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넘기는데”(자기 작품의 의도에 주목하지 않는 평론가들에 대한 언급으로 추정된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소설 속 춘희로 대변되는 “그 시절에 소위 양공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한다. 박완서, 『박완서-문학의 뿌리를 말한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86~88쪽 참조.

다. 현보와 연애하며 방황하던 내가 춘희와의 만남을 계기로 아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시댁의 문화에 대한 이물감을 극복하고 집으로 돌아가 모성과 주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에서 춘희는 ‘나의 정체성 획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나’와 춘희는 여성 서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인물이 두 개의 독특하고 상반되는 인물로 나뉘는 ‘분신’ 혹은 ‘짝패(double)’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남자네 집』에 이르러 박완서는 양공주를 전쟁의 극렬한 생존주의가 양산한 ‘속물’이 아니라 희생자로 재현함으로써 자매애적 윤리감을 보여 준다. 주인공인 나와 춘희의 삶에 대한 대조를 통해 전쟁의 여성적 양상을 포착하는 한편으로 양공주 여성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폭로함으로써 양공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나’는 시댁의 이웃이었던 춘희를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 줌으로써 그녀의 인생에 깊숙이 연루된다. 춘희는 폭격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대리 남편이자 많은 동생들을 먹여 살릴 가장이 된다. 그녀는 어머니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며 굶기를 밥 먹듯 하는 동생들을 키우지만 경제력이 나아지지 않자 미군 부대를 그만 두고, 육체 자본을 밀친 삼아 외국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장에 뛰어들다. ‘나’는 그런 춘희를 보며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점점 거리를 두는 식으로 자신과 그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나 춘희는 나의 무관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니”라는 다정한 호칭으로 부르며 자신의 인생 속으로 끌어 들인다. 이국 병사에게 버림받은 춘희는 마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기라도 하듯, 혹은 공감에 대한 요구인 듯 신혼의 새댁인 나를 자신의 낙태 수술의 참관인으로 세운다.

그러나 나의 춘희에게 공감과 연민을 보여 주지 않는다. 춘희의 “짐승의 상처”와 같은 성기는 내가 일탈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가정 영역에 안착하게 하는 반면(反面) 교사의 역할을 한다. 자신이 잉태한 아이를 낙태하기 위해 침상 위에 누운 춘희의 “검은 털을 가진 짐승의 상처처럼 다만 검붉고 처참”(233쪽)한 성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축복받지 못한

임신을 한 여성이 겪는 비난과 모멸을 일깨움으로써 현보를 향한 일탈적 욕망에서 벗어나 젠더 규범으로써 모성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정신이 화들짝 깨어난 듯” 나는 아들을 광신적으로 신앙화 하며 날마다 남편을 위해 산해진미를 차려내는 시어머니가 있는 시택으로 되돌아간다. 이후 나는 알 수 없는 바람으로 탈주를 꿈꾸는 위험한 여성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며 모성애의 순수한 희열을 느끼고, 이념을 “취향”으로 번역하는 생활인인 남편을 경멸하는 대신 “가부장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여성이 된다. 그리고 은행원인 남편의 저축과 용자 능력에 힘입어 마당이 넓은 이층집으로 이사한다. 나는 한치의 의심이나 회의없이 개발 독재기의 한국인이 그러하듯이 중산층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의 교육에 투자하고 살림을 윤기 나게 돌보는 현숙한 주부가 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전쟁의 암울과 궁상의 흔적을 말끔히 걷어 낸 나의 ‘요새’는 이방인의 침입을 받으며, 내가 어렵게 이룩한 평화를 심문(審問)한다. 전쟁이 끝난 후 흑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건너가 동생들을 초청해 간 춘희는 한국에 남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귀국해 나를 인스턴트 커피를 선물로 들고 찾아온다. 그러나 나와 시어머니는 한 때 가까운 이웃이었던 그녀를 반가워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꺼려한다. 그녀의 귀환은 매장해 버린 시체가 관 뚜껑을 열고 산 자의 세계로 돌아온 것과 같은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어려운 시절에 ‘춘희’는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부양한 지극한 효녀였지만 지금은 민족의 부끄러운 과거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상처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춘희는 민족의 수호와 가족의 부양을 위해 이국의 병사에게 몸을 팔아야 했던 미군 위안부, 즉 기지촌 공창제의 희생자이지만 민족의 수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혐오 대상이다.<sup>27)</sup> 그럼에도

27) 앞서 말했듯이 전쟁기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정권 혹은 국가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주의적인 필요악으로 여겨졌다. ‘유엔 마담’이라는 존칭의 위양스는 단순히 비아냥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불구하고 마치 지위버릴 수도 삭제해버릴 수도 없이 검질기게 따라 붙는 나쁜 기억인 양 비천한 육체의 “양공주” 춘희는 ‘나’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려는 듯 ‘언니’라는 애뜻한 이름으로 읊아매며 교신을 시도한다.

어머니의 시신마저 화장하고, 한국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춘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온다. 박완서는 무려 296~306 페이지에 걸쳐 춘희의 도무지 끝나지 않을 듯한, 끝낼 수 없을 듯한 독백을 통째로 담은 과격적 구성을 선보인다. 술에 취한 춘희는 자신이 어머니와 질긴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지독한 가난 속에서 동생들을 먹이고 교육을 시키지만, 모멸을 견딜 수 없어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 한다. 모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족주의적 공동체에서 양공주는 관용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슬픔과 환멸 속에서 한국을 떠난다. 그리고 비록 식민자의 나라이지만 이민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미국에서 마치 전쟁에 복수라도 하려는 듯 동생의 조카들을 저마다 의사, 교수로 성공시킨다. 그녀야말로 ‘맨 몸의 숭고’라고 할 만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국적인 모성인 것이다. 춘희의 인생은 가족의 안위, 성공으로도 영영 위로받을 수 없는 깊은 공동(空同)을 드러내고 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치심마저 버리고 아버지를 죽인 양키를 끌어안았지만 생전 불감증으로 살았던 성매매 여성, 남자와 셀 수도 없이 잠자리를 했지만 짝사랑은커녕 단 한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녀의 인생이야말로 부조리하기 때문이다. 끝내 나는 춘희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다. 전쟁이 앗아간 그녀의 삶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고, 위로가 불가능한 슬픔이기 때문이다. 무너진 독의 물처럼 쏟아져 넘쳐흐르는 그녀의 말은 살아 남았다는 것을 안도가 아니라 수치심을 일깨우는

---

그러나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 위안부는 ‘양공주’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단일 민족으로서 순결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화적 오염원으로 취급된다. 김준현,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 『한국민족문화』 5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25~26쪽.

또 다른 슬픔이 되게 한다.

#### 4. 결론을 대신하며

박완서의 문학은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큰 수치이자 슬픔으로 느끼는 여성 화자의 이야기이다. 이렇듯 고도로 예민한 도덕 감정은 역사의 악을 체험한 자가 사건이 종결된 후에 자신의 연명에 대해 느끼는 자책의 한 양태이다. 인간은 전시 하에서 동물적인 수준에서 살았다. 인간은 새벽부터 밤까지 배고픔과 피로와 추위, 두려움에 고통 받아야 했고,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기 위한 성찰의 자리는 없었다. 사람들은 이웃의 식량을 훔치고,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도 죄책감조차 품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러움과 사생활의 결핍과 자기 존재의 축소를 견뎌냈다. 전쟁으로 인해 삶의 윤리적 잣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삶의 방식처럼 여겨졌다.<sup>28)</sup> 그러나 전쟁이 끝나 인간적 삶을 확보해 자기 존재의 일부를 박탈당했다는 의식을 되찾자 수치심이 찾아온다. 나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나보다 더 약하거나 더 쓸모 있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의해 삼켜졌다는 불편한 감정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박완서는 살아남은 자가 희생된 자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을 회피하거나 극복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제시했다.

도덕 감정으로서는 수치를 이야기 하는 주체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쟁은 남성들의 영웅적 희생 서사로 미화되는 한편으로 전후의 국가재건은 문화 혼종으로 인해 민족의 주체성

28) 유대계 이탈리아인인 프티모 레비(Primo Levi)는 이차 세계대전 이후 절멸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이후에 오랫동안 자신을 사로잡았던 불편한 마음, 즉 얼굴을 달아오르게 하고, 거둬 그 시절로 돌아가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했던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하며, 의로운 자만이 느끼는 이 감정만이 아우슈비츠의 학살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면역 방어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레비의 글을 참조할 것. 프티모 레비, 앞의 책, 87~90쪽.



이 무너지는 데 따른 공포를 여성에게 투사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전사 하에서는 이민족에게 몸을 파는 양공주나 양풍 모방을 일삼는 유한 마담으로 민족에게 수치를 안겨 주는 대상으로 낙인 찍혔으며, 남성을 행위 주체로 한 개발의 시대에는 조국 근대화에 기여할 수 없는 ‘비국민’으로 취급되었다. 박완서는 전쟁이 남성적인 것으로 재현되면서 부재로 남은 여성들의 전쟁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전쟁을 여성의 생존과 성숙의 서사로 다시 써 왔다. 또한 여성을 수치 그 자체로 환원하는 가부장적 재현의 관습에 맞서 소외된 여성을 공동체의 허위를 들추어내는 발화 주체로 제시했다. 특히 가족과 민족이 기생해 어려운 시절을 건디어 냈으면서도 집단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괴물로 낙인찍어 공동체 바깥으로 추방해 낸 역사의 타자인 양공주를 통해 젠더화된 전쟁의 양상을 포착하고,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의 위치를 부여한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삶을 구성하는 활동은 인간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전쟁에 대한 글쓰기는 공동체에서 정치적 주권의 자리를 얻기 위한 능동적 행위이다. 한국의 여성 문학은 박완서를 통해 전쟁의 아물지 못한 여성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젠더 규범에 대한 복종적 수행을 거부하는 비판적, 대안적 여성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박완서, 『그 가을의 사흘동안』,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4.  
 박완서, 『그 산은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1995.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4.  
 박완서, 『박완서-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2. 단행본

- 김양선, 『복원과 복수의 네버엔딩 스토리』, 『경계에 선 여성문학』, 역락, 2009, 121쪽.
- 박경리, 『재귀열(再歸熱)』, 『박경리문학전집 10: 환상의 시기』, 지식산업사, 1987, 237쪽.
- 이영진,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정치』,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 시아의 죽음과 기억』, 이영진 외, 도서출판 길, 2017, 165, 245쪽.
- 이재경·윤택림·조영주 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2013, 17쪽.
- 한국여성민우회 엮음, 『거리에 선 페미니즘 - 여성 혐오를 멈추기 위한 8시간, 28800초의 기록』, 궁리, 2016, 200쪽.
- 레인 H. 김·최정무, 박은미 역, 삼인, 2001, 188쪽.
- 베네딕트 앤더슨, 윤흥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1991, 19~63쪽.
-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2, 51쪽.
- 와카쿠와 미도리, 김원식 역, 『전쟁과 젠더: 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 알마, 2005, 201쪽.
- 일레인 H. 김·최정무,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27~28쪽, 56쪽, 188쪽.
- 프리모 레비, 이소영 역,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87~90쪽.
- 하야시 히로후미, 박해순 역, 『한국에서의 미군의 성 관리와 성폭력: 군정기부터 1950년대』, 『군대와 성폭력』, 송연옥·김영 외, 선인, 2012, 251~282쪽.

## 3. 논문

-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17, 한국여성철학학회, 2012, 35~60쪽.
- 김은하,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59~179쪽.

- 김준현,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 『한국민족문화』 5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41~68쪽.
- 서정자, 『박화성의 해방 후 소설과 역사의식』,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49~72쪽.
- \_\_\_\_\_,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식 어떻게 볼 것인가』, 『숙명문학』 2, 숙명문학인회, 2013, 206~229쪽.
- 손희정, 『관계성을 드러내는 사건, <자 이제 댄스타임>』, 『여/성이론』 3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4, 238~252쪽.

## Abstract

### Finding the trace of gendered war and women

- Sexual economy in the occupied territory and memory narratives for the female survivals

Kim, Eun-Ha

In Korean literature has been showing the appearance of 'memory politics' that made crack in the dominant memory finding the trace of those who fell into the black hall of oblivion against nationalism of mourning. However, during minorities struggled for the memory of war, the war that women experienced was not comprised in public emotion condolence, even though the memory struggle of minorities was going on. The reason why the war that women experienced was not come under the spotlight is related to 'the sense of stranger for woman'. During the war, as she is exposed to sexploitation or sex violent of enemy troops, woman will be in contradiction which she has to grow a soldier not a priest of life, or sometimes has to bring a baby of an enemy into the world and grow. Through liberation and war, however, as the sexual benefit relations between the beneficiary country and the aid country was made up; the Korean nationalism implied a strong patriarchal system.

As Park Wan-suh appeared, the memory and the grief work of scar that left in woman's life were available. In her debut work, 『Na Mok』, Park Wah-suh described the daughter(woman) felt a sense of shame because the noble peoples left, instead of them, she survived. Through the repeated memory correction and the

restoration of memory of her brother's death who was on the side of the left party, she became the Korean 'Antigone' who aroused citizen's justice against the country law of 'forbidding mourning. The reason why she repeated the story of war is that there are still many unnamed people who sank to the bottom of deep well. These people are "the foreigner's whore" who was eliminated in the memory of patriarchal nation-state war. Park Wan-suh invited those who were 'subalten' of women to her literature space and gave a position for talking about their sorrow.

She tried to find the trace of women that the patriarchal nationalist community eliminated, and gave the survivors a duty to memory and to mourn.

Key words : Park Wan-suh, Korean war, sexual violence during the war, a foreign whore, nationalism, memory and mourning etc.

■ 본 논문은 2018년 4월 2일에 접수되어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